

제 1 교 시

2019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나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학여행 때 동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던 일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여기 화면을 보시죠. (자료 제시) 보시는 사진은 태평양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입니다. 이 섬의 크기가 무려 우리나라의 1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 섬을 본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바다에 떠도는 쓰레기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섬이 생기지 않도록 바다의 쓰레기 수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해류를 타고 바다를 떠도는 쓰레기를 일일이 쫓아다니며 수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안 슬렛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16살 때 보안은 쓰레기 섬의 존재를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쓰레기 섬이 생기지 않도록 바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쓰레기 섬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고 그는 환류라는 해류 현상으로 인해 쓰레기 섬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환류란 무엇일까요? (㉠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것이 환류입니다. 환류란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도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환류를 타고 이동하는 쓰레기가 환류의 중심으로 모이면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보안은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 자료 제시) 이것은 보안이 고안한 아이디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안은 V자 형태의 거대 울타리를 바다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환류로 인해 떠돌던 쓰레기들이 V자 울타리의 꺾인 지점에 모이기 때문에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원하는 곳에 울타리를 설치하면 쓰레기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이 방식은 기존의 쓰레기 수거 방식에 비해 비용은 1/33로 줄이면서도 그 속도는 무려 7,900배나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쓰레기 처리 효율이라면 10년 이내에 태평양 쓰레기의 절반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안은 이러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렸고, 아이디어에 공감한 사람들로부터 200만 달러가 넘는 환경 기금을 모아 비영리 환경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안이 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문제에 대한 참신한 발상으로 바다에 숨을 붙여넣고 있는 보안처럼 여러분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욕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제2의 보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환기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어야겠어.
- ②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해야겠어.
- ③ 발표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짐작하게 해야겠어.
- ④ 발표 중간 중간에 질문을 던져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해야겠어.
- 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들에게 권유하는 말을 덧붙이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2.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학생 1: 발표를 듣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의 심각성을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좋았어. 그런데 바다를 떠도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 외에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 섬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

학생 2: 나도 보안과 같이 문제 해결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얼마 전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넛지 이론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어. 넛지 이론을 활용하여 학교 앞 공터를 꽃밭으로 만들면 공터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 3: 예전에 인터넷에서 바다에 버려진 빨대가 코에 꽂혀 괴로워하는 거북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발표 내용이 더 마음에 와 닿았어. 그런데 내가 발표자였다면 해양 동물의 고통과 같은 해양 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했을 것 같아.

- ① 학생 1은 발표를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따라 자신의 지식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군.
-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 내용에 공감하고 있군.
- ④ 학생 1과 학생 3 모두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⑤ 학생 2와 학생 3 모두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군.

3. <보기>는 발표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자료 1>

<자료 2>

- ① <자료 1>은 쓰레기 섬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② <자료 1>은 쓰레기 섬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③ <자료 2>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④ <자료 2>는 보안의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⑤ <자료 1>과 <자료 2>는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4~7] (가)는 학생들의 토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토의 전 상황]

지난 토의 시간에 학생회 임원들은 학생회장 투표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기로 하였다.

(가)

학생 1: 자, 그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의해 보자.

학생 2: 이번 선거부터 투표 방식을 변경하게 됐으니, 학생들에게 새로 도입하는 방식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게 중요할 거야.

학생 3: 맞아. 그러려면 먼저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 반별로 정해진 시간에 단체로 투표를 하다 보니, 투표를 소중한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귀찮은 의무로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 작년 선거만 봐도 장난삼아 성의 없이 투표하는 인원이 많았고 그래서 무효표도 많았다는 걸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학생 2: 그래. 작년 투표 결과를 보니 무효표가 무려 15나 나왔는데, 그걸 인용하여 학생들을 억지로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갑자기 투표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 반발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A]

학생 3: 음. 이번 변경 안을 우리 학생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학생 2: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가 수차례 논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 학생들의 오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1: 그게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도 학생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변경된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투표에 참여하면서 민주적인 투표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

학생 2: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우리 목적은 투표 참여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 매년 반별로 시간을 정해 단체로 투표하는 방식에서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투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겠어. [B]

학생 3: 맞아. 또 투표장 위치와 기표소의 배치가 달라졌다는 점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어.

학생 1: 그리고 투표 방식을 변경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생들이 후보들의 연설을 귀 기울여 듣고 누가 가장 훌륭한 일꾼일지 고민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는 내용을 담도록 하자.

학생 3: 그래 좋아. 그런데 ㉠ 투표 방식을 변경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

학생 2: 새로운 방식이 가지는 의의를 드러내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해야지.

학생 1: ㉡ 캠페인 구호 같은 걸 만들어서 글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새로운 방식이 가지는 의의를 담고,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표현하자.

학생 2: 찬성이야. 그리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살리는 것도 좋겠어. 이렇게 캠페인 구호를 넣으면 보다 호소력이 있는 글이 될 것 같아. [C]

학생 3: 좋아. 그럼 다음 주에는 함께 글을 써 보자.

(나)

안녕하십니까. 00고등학교 학생회장 000입니다.

차기 학생회를 이끌어 갈 학생회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학생회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새로운 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별로 시간을 정해 단체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투표 방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선거의 경우, 장난이나 무성의한 투표로 무효표가 무려 15에 이르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기존의 투표 방식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번에 도입하는 자율 참여 투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생회장 선거는 선거일 하루 중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기존의 방식처럼 반별로 정해진 시간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그리고 자치회 시간 등을 이용해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장은 체육관 대신 본관 현관 입구에 설치하고 기표소의 간격을 좀 더 넉넉하게 해서 나란히 배치했으니 투표를 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D]

우리는 새로운 투표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투표에 참여하면서 민주적인 투표 방식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후보들의 연설을 귀 기울여 듣고 누가 가장 훌륭한 일꾼인지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참정권을 바르게 행사함으로써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새로운 투표 참여 방식에 대한 경험이 그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

4.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3’이 장난삼아 성의 없이 투표한 경우를 언급한 것은 기존 투표 방식과 무효표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 ② ‘학생 2’가 작년의 통계를 언급한 것은 기존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 ③ ‘학생 1’이 투표 방식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반응을 언급한 이유는 반발하는 학생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 ④ ‘학생 2’가 설문 조사 결과의 반영을 언급한 이유는 학생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투표 방식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군.
- ⑤ ‘학생 1’이 새로운 방식의 장점을 언급한 것은 ‘학생 3’이 제기한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변경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대방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한 후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 ② ㉡은 상대방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 ③ ㉠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에서 제시되고 있다.
- ④ ㉠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고, ㉡은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다.
- ⑤ ㉠과 ㉡ 모두 우려되는 문제의 상황을 들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6. (가)의 [B]를 바탕으로 (나)의 [D]를 작성했다고 할 때, [D]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들에게 변경된 투표 장소를 알려주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투표 장소를 변경한 이유도 같이 설명한다.
- ② 기표소와 관련한 변경 사항을 알려주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투표장 내에 배치한 기표소의 개수를 안내한다.
- ③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투표 시간을 기존의 방식과 대비하여 안내한다.
- ④ 투표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려주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방식에 따라 달라진 투표 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한다.
- ⑤ 새로운 투표 방식을 알려주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투표 참여 대상의 차이점을 제시하여 안내한다.

7. [C]를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캠페인 구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스로 찾아가는 투표 현장, 저절로 피어나는 민주 의식
- ② 성실히 참여한 여러분의 투표,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대표
- ③ 여러분이 키워 보낸 한 표가 소중한 일꾼 되어 돌아옵니다.
- ④ 투표소에서 모아지는 작은 한 표, 민주주의 씨앗을 뿌려볼까요?
- ⑤ 진지하게 생각한 여러분의 한 표,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8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 글의 목적 :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의 도입을 제안함.
- 예상 독자 : 우리 학교 교사와 학생
-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 올해 실시한 체육대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
 - 현행 체육대회의 한계를 지적해야지. ㉡
 - 스포츠클럽 대회를 제안하며 그 방식을 언급해야지. ㉢
 - 스포츠클럽 대회 도입 시의 기대 효과를 강조해야겠어. ㉣
 - 스포츠클럽 대회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
 - 제안하는 바를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해야지.

(나) 글의 초고

우리 학교는 올해도 예년처럼 지난 1학기 중간고사 직후에 축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매년 한 차례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평소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학생들은 현행 체육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경기 참여 기회 역시 제한된다는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현행 체육대회는 유지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대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학교의 다양한 스포츠클럽의 종목들 중에서 매월 학생들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해 점심시간 내지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경기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그만큼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할 것이다. 즉, 보다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더욱 많은 학생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며, 직접 출전하지 않는 종목일지라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늘어나기에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대회 운영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나 학생들의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진 않으나, 현행 체육대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인생의 전 시기 중에서 청소년기는 육체와 정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업과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 (가)의 ㉠ ~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보기>는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A. 현행 체육대회에 대한 만족 여부 (단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8	17	53	21

B. 현행 체육대회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일회성 행사에 그침.	34
종목의 다양성이 부족함.	32
경기 참여 기회가 제한됨.	27
기타	7

C. 교육 전문 잡지

그간 청소년기의 체육 활동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었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매주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체육 활동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 체육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특히 매월 학교 내의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주축이 되어 해당 종목의 체육대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체육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 ① A를 활용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근거로 제시하여 현행 체육대회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 ② B를 활용해, 현행 체육대회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이유로 종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③ C를 활용해, 체육 활동이 학생들의 학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A, C를 활용해, 스포츠클럽 대회 도입이 학생들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B, C를 활용해, 스포츠클럽 대회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상시적이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10.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점검하여 고쳐 쓴 내용이다. 학생이 점검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몸과 마음이 급격히 성숙하는 청소년기에 체육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일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스포츠클럽 대회를 도입함으로써 체육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① 예상 독자인 학교 여러 구성원 중에서 체육 활동에 실제로 참여할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수정해야겠다.
- ②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클럽 대회의 도입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③ 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정신적 측면과 육체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야겠다.
- ④ 글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청소년기 체육 활동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스포츠클럽 대회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도록 고쳐 쓰는 것이 좋겠다.
- ⑤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참여 주체인 청소년들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감탄문은 감동·응답·부름·놀람 따위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함께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 국어의 감탄문은 감탄형 어미의 형태에 따라 ‘구나’ 형 감탄문과 ‘어라’ 형 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구나’ 형 감탄문은 감탄문의 일반적 유형인데,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는)구나, -(는)구먼, -(는)구려, -군, -네’ 등이 붙어서 실현된다. 이에 비해 ‘어라’ 형 감탄문은 형용사의 어간에 종결 어미인 ‘-아라/-어라/-여라’가 붙어서 실현된다. 감탄문은 다른 문장 성분 없이 독립어와 서술어만으로 실현될 수 있다. ‘구나’ 형 감탄문의 높임 표현도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는데, 격식체에는 ‘해라체’의 ‘-(는)구나’, 하계체의 ‘-(는)구먼’, 하오체의 ‘-(는)구려’ 등이 쓰이고, 비격식체에는 ‘해체’의 ‘-군, -네’ 등이 쓰인다.

한편 중세 국어의 감탄문은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와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에 감탄형 종결 어미인 ‘-니더, -르썸/-르셔’ 등이 붙어서 실현되고, 후자는 선어말 어미인 ‘-도-/-똥-/-웃-’ 등이 붙어서 실현된다. ‘-도-’는 ‘-다’ 앞에서 쓰인 ‘-똥-’의 이형태이다.

ㄱ. 도흘썸 오늬날 果報 | 여(중구나 오늘날의 과보여) [월석 23:82]

ㄴ. 이 男子 | 精誠이 至極흘썸 보뵈를 아니 앓기똥다

(이 남자가 정성이 지극하므로 보배를 아니 아끼는구나) [월석 1:11]

ㄱ의 ‘도흘썸’은 ‘똥다’의 어간에 감탄형 어미 ‘-르썸’이 붙어서 감탄이 실현된 것이고, ㄴ의 ‘앓기똥다’에서는 ‘-웃-’이 붙어서 감탄이 실현된 것이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감탄문’에 대해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앗, 차가워라!’는 놀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함께 실현된 감탄문이다.
- ② ‘철수가 계를 잡는구나!’는 해라체에, ‘철수가 계를 잡는구려!’는 하오체에 해당한다.
- ③ ‘벌써 개나리가 피었네!’는 해체로 쓰이는 감탄형 어미 ‘-네’가 붙어서 실현된 감탄문이다.
- ④ ‘아, 시원해라!’는 다른 문장 성분 없이 독립어와 서술어만으로 감탄문이 실현된 문장이다.
- ⑤ ‘호박죽이 너무 뜨겁구나!’와 같은 ‘구나’ 형 감탄문을 만들 수 있는 용언의 품사는 ‘어라’ 형 감탄문에 비해 제한적이다.

12. <보기 2>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의 ㉠ ~ ㉥를 설명한 것이다. <보기 2>의 ㄱ ~ ㄴ 중, 옳은 설명만을 골라 묶은 것은?

— < 보기 1 > —

- ㉠ 義는 그 큰더 (의는 그것이 크구나) [내훈 3:54]
- ㉡ 摩耶 | 如來를 나쓰불실씨(마야가 여래를 낳으셨구나) [석상 11:24]
- ㉢ 새 그를 어제 브터 보내돏더라 (새 글을 어제 부쳐 보내었더구나) [두언 23:29]
- ㉣ 내 아드러 어덜씨 (내 아들이 어질구나) [월석 2:7]
- ㉤ 빠디 기프시도다 (뜻이 깊으시구나) [금삼 5:21]

— < 보기 2 > —

- ㄱ. ㉠은 감탄형 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된 감탄문이고, ㉡는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된 감탄문이다.
- ㄴ. ㉡와 ㉣를 통해 동사, 형용사가 감탄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ㄷ. ㉡와 ㉤를 통해 감탄형 종결 어미가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ㄹ. ㉢와 ㉤를 비교해 보면 감탄문을 만드는 선어말 어미의 이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3.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관형사절에 대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관형사절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생략된 관계절과 그렇지 않은 보문절로 나눌 수 있다. 관계절에서 안긴문장 속의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것은 그 성분이 지시하는 대상이 피수식어인 체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앞에 종결 어미가 있는 긴 관형사절과 종결 어미가 없는 짧은 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다. 긴 관형사절과 짧은 관형사절은 서로 바뀌도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운 경우와 바꾸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관형사절은 전체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 ① “내가 되려는 의사라는 직업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단다.”
⇒ 주어가 생략된 짧은 관형사절로 이 절을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 ② “오늘에서야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
⇒ 종결 어미가 있는 관계절로 이 절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 ③ “너는 개울에서 헤엄을 쳐 본 경험이 있니?”
⇒ 종결 어미가 없는 보문절로 긴 관형사절로 바뀌도 자연스럽다.
- ④ “나는 그때 내가 그렸다는 그림을 보았다.”
⇒ 목적어가 생략된 긴 관형사절로 이 절을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 ⑤ “그분이 노벨상을 타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 종결 어미가 있는 보문절로 짧은 관형사절로 바뀌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14. <보기>는 모음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단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인접하면 모음들이 충돌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기도 하고, 선행 모음 ‘ㄱ’이 다른 단모음 앞에서 탈락하거나 선행행 모음이 동일할 때 한 모음이 탈락하기도 한다. 또한, 두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하고, 두 단모음이 새로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되기도 한다.

- ① ‘과- + -아서 → [과서]’는 동일한 단모음 ‘ㅏ’와 ‘ㅏ’ 중 하나가 탈락하였다.
- ② ‘비- + -어서 → [비여서]’는 단모음 ‘ㅣ’와 ‘ㅣ’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 ③ ‘쓰- + -이- + -어 → [쓰여]’는 ‘ㄱ’이 그대로 유지되고, ‘ㅣ’ 앞에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 ④ ‘바꾸- + -어라 → [바꿔라]’는 단모음 ‘ㅓ’가 반모음으로 교체된 다음 ‘ㅣ’와 결합하였다.
- ⑤ ‘보- + -이- + -어 → [뵈여]’는 ‘ㅓ’와 ‘ㅣ’가 단모음으로 축약되고, ‘ㅣ’ 앞에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15. <보기 1>을 고려할 때, <보기 2>의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보기 1 > —

절대 시제는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를 비교하여 사건시가 앞서면 과거, 일치하면 현재, 발화시가 앞서면 미래로 나눈다. 한편 상대 시제는 안은문장이나 주절의 사건시를 안긴문장이나 종속절의 사건시와 비교하여, 안긴문장이나 종속절의 사건시가 앞서면 과거, 일치하면 현재, 안은문장이나 주절의 사건시가 앞서면 미래로 나눈다.

— < 보기 2 > —

- ㄱ.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밥을 먹는다.
 ㄴ. 내일 우체국 가는 길에 은행에 들르겠다.

- ① ㄱ의 ‘들으며’의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는 일치하지 않는다.
 ② ㄴ에서 ‘가는’의 절대 시제는 ‘들르겠다’의 절대 시제와 일치한다.
 ③ ㄱ의 ‘들으며’의 상대 시제와 ㄴ의 ‘가는’의 절대 시제는 모두 현재이다.
 ④ ㄱ의 ‘먹는다’의 ‘-는-’과 ㄴ의 ‘가는’의 ‘-는’은 모두 절대 시제가 현재임을 나타낸다.
 ⑤ ㄱ의 ‘들으며’의 ‘-으며’는 ‘들으며’의 사건시가 ‘먹는다’의 사건시보다 앞섬을 나타낸다.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노파는 손녀의 오늘따라 유별난 친절이 거북하다 못해 슬그머니 심통이 난다. ㉠ 흥, 내가 미국을 가게 되니까 너도 별수 없이 나에게 아침을 떠는구나, 누가 모를 줄 알구…… 노파의 소견머리는 고작 이쯤밖에 안 움직인다. 그만큼 노파는 식구들의 지청구에만 익숙해 있다.

제 에미를 닮아 새침하고 곱살스러운 데라곤 손톱만큼도 없던 손녀딸년이 할머니 서울 구경을 제가 맡고 나선 것도 수상한데 박물관에 들어오자 등에 손을 돌려 부축까지 해 주며 저것은 범주사 팔상전을 본딴 것, 저것은 불국사의 어디 어디를 본딴 것 하며 열심히 설명까지 하자 노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거니와 친절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서투르다. 손녀가 환성을 지르며 손가락질하는 데를 바라 보며 집 한번 으리으리 잘 지어 놨다 싶더라도, 흥 저까짓 거 미국엔 백 층도 넘는 집이 수두룩하다는데 곧 미국 할머니가 될 내가 저까짓 것에 놀랄까 보냐고 콧방귀를 툰다.

머리숱하며 몸집하며 이목구비가 자리 잡은 간살하며 어디 한 군데 넉넉한 데라곤 없이 웅색하고 박하게만 생긴 노파가 남을 알잡을 때만은 갑자기 의기양양하고 되바라지며 밝고 귀여운 얼굴이 된다. 꼭 불이 켜진 꼬마전구같이. ㉡ 요새 이 꼬마전구는 꺼져 있는 동안보다 켜져 있는 동안이 훨씬 많다.

노파는 곧 미국을 가게 모든 수속이 다 끝나 있다. 딸의 덕에. 노파에겐 이 딸의 덕이란 게 암만해도 진수성찬 끝에 구정물 마신 것 모양 꺼림칙했지만 아들 넷 중 맏이만 빼놓고 세 아들이 다 미국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다시 고개가 뺨뺨해지며 당당해진다. 노파에게 미국이란 우선 먹을 것, 입을 것이 지천인 부자 나라도 되었지만, 서울 장안만 한 넓이의 고장도 되어서 딸하고 수틀리면 아들네로, 그 아들하고도 틀리면 다음 아들네로 몽당치마에 바람을 일으키며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 노파의 자식들 중 미국에 있는 건 딸 뿐이고, 둘째 아들은 서독(西獨)에, 셋째 아들은 브라질에, 넷째 아들은 괌에 가 있다. 세 아들이 어찌다 일이 잠깐 빗나가 지금 미국 아닌 고장에 뿔뿔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 그들의 당초의 목적은 미국이었고 미국으로 이민 갈 연줄을 찾아 눈에 핏발이 서 동분서주할 때부터 노파는 “미국, 미국, 미국에만 갈 수 있으면!” 하는 아들들의 잠꼬대 같은 탄식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 왔고, 그러는 사이에 노파에게 미국이란 가기는 힘들지만 갈 수만 있으면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금시발복*의 땅이란 고정관념이 뿌리박았다.

(중략)

한 젊은이가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하고 상냥하게 말을 건다.

“㉢ 그 뭐라나, 미국의 어디메드라? 참, 쌍포리코라던가.”

“네, 샌프란시스코요. 저도 그리로 가는데요.”

젊은이가 광대같이 우스꽝을 떨며 노파를 껴안았다. 노파도 반가워서 젊은이 손을 덥석 잡았다가 놓으면서, “참 내 정신 좀 봐. 내가 이러구 있을 게 아니라 버스 떠나기 전에 식구들에게 든든한 동행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이 늙은이 혼자 떠나보내고 발길들이 안 돌아설 텐데.”

노파는 허겁지겁 버스를 내린다. 노파는 그냥 가족들을, 특히 길남이를 다시 보고 싶을 뿐이다. 버스에서 내린 노파는 송영대 밑으로 달려가 송영대를 쳐다보며 악을 쓴다.

“애들아, 마침 쌍포리코까지 같이 갈 동행을 만났다. 아주 친절한 젊은이야. 내 걱정들은 마라.”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다. 낯선 사람들이 킬킬거릴 뿐이다. 다시 쳐다봐도 송영대에 밀집한 사람 중 낯익은 얼굴은 하나도 없다. 벌써 환갑집으로 가버린 모양이다.

㉣ 다시 확인하고 싶으나 시야가 자꾸만 부엌에 흐려져 그제 여의치 않다. 별안간 송영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져서 숨듯이 다시 버스에 오른다. 버스를 내려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동안 내내 노파는 혼돈 속을 가듯 눈앞이 지척을 분간 못 하게 부엌고 의식조차 흐리멍덩하다. 아까의 젊은이가 노파

를 부축해 주려다 말고 탄 젊은이들과 섞여서 시시덕댄다.

마침내 기체가 이륙하는 것을 노파는 심한 충격과 함께 의식한다. 그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라 노파 하나만의 것인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충격이다.

몇 백 년쯤 묵은 고목이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몽땅 뽑히는 일이 있다면 그때 받는 고목의 충격이 바로 이러하리라. 노파의 의식이 비로소 혼돈을 헤치고 뿌리 뽑힌 고목으로서의 스스로를 인식한다.

비행기 속의 젊은이들은 노파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국을 뜨는 마당에 일말의 애수조차 없이 다만 기쁘고,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도 동류의식을 느낄 수 없다. 노파는 외롭다.

“할머니 울잖아? 애기같이, 우리도 안 우는데. 울지 마. 우리 같은 처지야.”

아까의 젊은이가 광대 같은 표정으로 어리광을 떨며 노파를 웃기려 든다.

㉠ 하긴 저들도 뿌리 뽑혔달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저들은 묘목이다. 어디에고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묘목이다. 그러나 난 틀렸어. 난 죽은 목숨이야.

노파는 노파의 아들들이 이를 갈며 싫어했고 진저리를 치며 놓여나기를 갈망했던 이 땅의 모든 구질구질한 것까지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안다. 노파는 마치 자기 시신(屍身)을 보듯 이 숨막히는 공포로 뽑혀 나동그라진 거대한 나무와 지상으로 노출된 수만 가닥의 수근(樹根)이 말라비틀어지는 참담한 모습을 환상하며 심장을 쥐어짜듯이 서럽게 운다.

- 박완서, 「이별의 김포공항」 -

* 금시발복(今時發福): 어떤 일을 한 뒤에 복이 곧 돌아와 부귀를 누리게 됨.

1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에 따라 시점을 달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공간의 사건을 병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상황의 원인을 역순행적으로 추리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④ 작품 속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품 속 특정 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대상과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17.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손녀’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노파’의 심리를 독백적 진술로 드러내고 있다.
- ② ㉡: 이전과 달라진 ‘노파’의 심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로 우스꽝을 떠는 ‘젊은이’의 허위의식을 비꼬고 있다.
- ④ ㉣: 기대했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 슬퍼하는 ‘노파’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⑤ ㉤: ‘젊은이’와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이륙 상황에서 ‘노파’가 느끼는 감정을 부각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인간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통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세계는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희망이 과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질 때 맹목적인 동경이 된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떠나 다른 세계로 가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비로소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적인 현실마저도 자신의 삶의 일부임을 깨닫고 그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그런 인간의 경험과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①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험과 심리를 ‘노파’의 미국행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리고 있군.
- ② ‘손녀’가 가리키는 곳을 ‘으리으리 잘 지어 놨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노파’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③ ‘미국에만 갈 수 있으면!’ 하고 ‘잠꼬대 같은 탄식 소리’를 한 ‘노파의 아들들’은 맹목적으로 다른 세계를 동경하는 인물들로 볼 수 있군.
- ④ ‘노파’가 ‘뿌리 뽑힌 고목으로서의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⑤ ‘노파’가 ‘이 땅의 모든 구질구질한 것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마저 사랑하는 인간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군.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소는 우주의 88%를 차지할 만큼 많고, 연소될 때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로켓 연료로까지 이용된다. 그러나 수소를 일상생활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지구 대기 속에 수소 기체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가장 간단한 원소로 되어 있는 수소 기체가 매우 가벼워 지구의 대기 밖으로 쉽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구상의 수소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소는 대부분 물속에 들어 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혼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 분해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함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 점을 고려해 ㉠ 식물의 광합성 시스템을 모방한 인공 광합성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햇빛을 이용하면 보다 적은 에너지로 수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물의 광합성은 엽록소가 NADPH와 ATP를 생성하는 명반응과 그것들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암반응이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엽록소 속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엽록소는 물을 분해해 전자를 보충한다. 즉 물(H₂O)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소(O)는 기체 상태로 배출되고, 수소는 전자(e⁻)와 수소 양이온(H⁺)으로 분해된다. 엽록소는 분해된 수소 양이온과 전자를 받아들인 다음 NADP⁺와 결합시켜 NADPH라는 효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편 엽록소에서 빠져 나온 전자는 빛 에너지가 전환된 화학 에너지 ATP를 생성하는 데 이용된다. 여기까지가 암반응 과정을 위해 필요한 명반응 과정이다. 암반응에서는 NADPH가 NADP⁺와 전자, 수소 양이온으로 분해되는데, NADP⁺는 다시 명반응 과정에서 NADPH를 생성하는 데 활용되고, 전자와 수소 양이온은 이산화탄소(CO₂)와 결합해 최종적으로 유기물인 포도당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ATP가 ADP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충당하는데, 생성된 ADP는 명반응 과정에서 ATP를 생성하는 데 재료가 된다.

㉔ 수소를 생성하는 인공 광합성 시스템은 포도당 대신에 수소 기체를 얻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공 광합성 시스템인 전지형 시스템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아 수소 양이온을 생성하는 광전극과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환원 전극이 물속에 있고, 두 전극이 전선으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다. 두 전극은 반도체를 가지고 만드는데, 광전극은 n형 반도체로, 환원 전극은 p형 반도체로 되어 있다. n형 반도체는 (-) 전하인 자유 전자가 (+) 전하인 정공보다 많고, p형 반도체는 정공이 자유 전자보다 많은 반도체이다. 빛 에너지를 받으면 광전극에서 자유 전자와 정공이 더욱 많이 생기고,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A] 자유 전자들은 전선을 따라 환원 전극으로 이동한다. 광전극에 남아 있는 정공들은 광전극의 표면에 물려 전자를 보충하기 위해 물을 분해한다. 그 결과 물의 산소는 기체 상태로 배출되고, 수소 양이온은 물속을 떠돌게 된다. 한편 환원 전극의 표면에서는 광전극으로부터 온 자유 전자를 이용해 수소 양이온을 환원시킨다. 즉 물속에 떠돌다 환원 전극의 표면에 도달한 수소 양이온이 자유 전자와 결합하는 것이다. 이때 수소 기체가 최종적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두 전극 사이에는 분리막이 있어, 광전극에서 만들어진 수소 양이온이 그것을 투과하면 광전극에서 반응할 수 없도록 하고, 생성된 수소 기체가 광전극 쪽으로 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공 광합성 시스템은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래서 태양 전지를 별도로 장착한 전지형 인공 광합성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약 12%까지 태양광-수소 전환 효율을 높였다. 한편 과학자들은 촉매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광전극에서 생긴 자유 전자와 정공은 분리되자마자 곧바로 다시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환원 전극으로 이동하는 자유 전자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환원 반응에 필요한 자유 전자가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광전극의 자유 전자와 정공들이 재결합하기 전에 산화, 환원 반응을 빠르게 하는 촉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반도체의 기능과 촉매의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지형 광합성 시스템의 전극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원료가 고가이고 그 공정 비용 또한 높다. 좀 더 싼 값에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 남은 숙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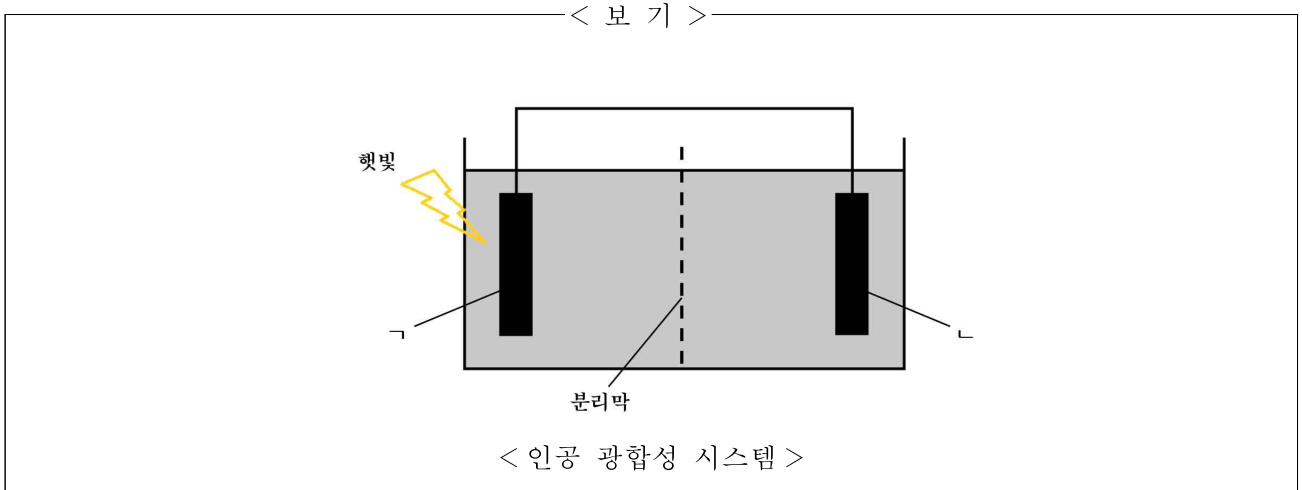
19. 밑글을 통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수소가 지구 대기 속에 존재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전지형 인공 광합성 시스템 개발에 있어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 ④ 자연의 원리를 활용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어떤 것이 있는가?
- ⑤ 인공 광합성 연구가 자연의 광합성 원리 연구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모두 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산물로 배출된다.
- ② ㉠, ㉡ 모두 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는 수소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용되지 않는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유기물을 생성한다.
- ⑤ ㉠의 염록소에서 방출된 전자와 ㉡의 정공과 분리된 전자는 같은 역할을 한다.

[21 ~ 22]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21.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정공과 자유 전자가 햇빛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이 생기겠군.
- ② ㉡의 주요 기능은 물을 분해하는 것이겠군.
- ③ ㉠의 자유 전자들은 ㉡으로 이동하겠군.
- ④ ㉠에서 생성된 수소 양이온이 ㉡에서는 환원되어 수소 기체가 되겠군.
- ⑤ ㉠은 자유 전자가 많은 반도체로, ㉡은 정공이 많은 반도체로 만들어졌겠군.

22. <보기>의 '분리막'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소 기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생성되게 하기 위한 장치로군.
- ② 광전극과 환원 전극의 공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장치로군.
- ③ 수소 기체 생성 과정을 보다 단순화하기 위한 장치로군.
- ④ 자유 전자를 더욱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장치로군.
- ⑤ 빛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한 장치로군.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포졸을 따라 한림이 오자 최 지부는 고발장을 꺼내 들고 죄목에 대해 물었다. 범한은 이미 계단에 우두커니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다 듣고 난 한림은 자신이 모함에 빠진 것을 알고는 마음이 아팠다. ‘이건 운명이야, 운명! 내가 허위로 자백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형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림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참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가 이미 모두 드러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 지부가 불쌍하여 탄식하면서 한림에게 말했다.

“죄인의 사정이 참 딱하구려. 어머니가 이미 고발장을 냈으니 효자 된 도리로 어떻게 발명할 수 있겠소. 그렇지만, 한나라 때 동해의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죄 없이 허위 자백하는 바람에 처형된 뒤 삼 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 태수 된 자는 후세에 어리석다는 말을 듣게 되었소. 지금 나도 그렇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소?”

그러자 범한이 큰소리로 외쳤다.

“㉠ 죄인이 스스로 그 죄를 알아 변명하지 않고 자백하였으면 벌을 줄 따름이지, 무슨 연유로 이 사람을 달래어 그 말을 바꾸려 하십니까?”

최 지부가 크게 화를 내며 범한을 끌어내리고 서릿발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다.

“천한 네 놈은 범가이면서 무슨 일로 화씨 집안일에 간섭하여 이처럼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냐?”

그러고는 그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 하고 한림은 일단 옥에 가두어 두었다. 범한은 수종의 은냥을 내서 옥졸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회를 보아 한림을 죽이려고 했다.

한편, 한림의 유모 계화는 심 씨에게 쫓겨난 후 고을의 부자 유이숙의 아내가 되었다. 계화는 한림이 변을 만나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며 먹지도 않더니, 화씨 집 문에서 자결하여 그 원통함을 밝히고자 했다. 유이숙이 이런 부인을 의롭게 여겨 말했다.

“내가 한번 가보리다.”

잠시 후에 유이숙이 돌아와서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 한림의 옥 같은 용모를 보니 천하의 군자였소. 사내대장부가 되어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러고는 금전을 많이 내어 물 쓰듯 뇌물을 주고 계화는 직접 옥중에 음식을 대었는데, 유이숙이 옥문 옆에 앉아 있다가 독이 있는지 먹어 본 후에야 들었다. 그러니 범한의 은화는 쓸모없이 허비된 셈이다. 옥문의 안팎에 흑시라도 범한의 그림자라도 보이면 흰 몽둥이와 붉은 작대기가 구름에 비 오듯 쏟아지니 범한은 간담이 서늘하여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최 지부는 한림의 사건을 지나 깨나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도어사 하춘해가 절강을 돌아보고 돌아가다가 소흥을 지나게 되었다. 최 지부는 크게 기뻐하면서 하 어사를 맞이했다.

“저희 고을에 의옥(疑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차에 다행히 나리께서 오셨으니 한번 나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고발장을 꺼내 보였다. 어사가 겨우 몇 줄 읽고는 놀라서 말했다.

“이른바 화진이라는 사람은 장원으로 급제해 한림학사가 된 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사는 모두 읽고 나서 팔을 걷어붙이며 한탄했다.

“지난번 언무경이 이 자를 불효하다고 탄핵했을 때 우리는 이 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했소.

그런데 지금 이 고발장을 보니 과연 한림은 흉특한 자였구려. 내가 마땅히 법이 바르게 서도록 하겠소. 끌고 오라 하시오.”

이에 한림이 뜰에 이르렀다. 어사는 그 고발장의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전처럼 대답하는 한림의 옥 같고 별 같은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그렇그렇하여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다. 가만히 보던 어사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나타났다. ‘군자로구나! 기린이 때를 만나지 못해 서상의 액(厄)*을 만났듯 곤경에 처했구나!’ 그러고는 최 지부를 돌아보고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호해 주시오.”

그날 밤 어사는 ㉠ 직접 쓴 편지를 시종들던 사람 왕겸을 시켜 몰래 화진에게 전하게 했다.

(중략)

한림은 다 읽고 나서 감격의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예전에 선친께서 대학사 하언의 충성을 칭찬하셨지. 지금 그 아들이 선하고 의로운 것을 보니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겠어. ㉡ 아, 불초한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왕겸에게 말했다.

“하 어사 나리께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생각해 주시고, 열 줄 글을 보내시어 이렇게 간곡하게 알려주시니, 아둔하고 사나워서 사람의 도리로 꾸짖기 부족한 저라도 어찌 일호 감동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죄인의 죄명은 이미 드러났고 국가의 법률이 지엄하니, 밝은 태양 아래서 차마 실상을 속이고 말을 바꾸지 못하겠습니다.”

왕겸이 하 어사에게 돌아가 이 말을 전하자 어사가 감탄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효성스럽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동요하지 않으니 나도 어쩔 수 없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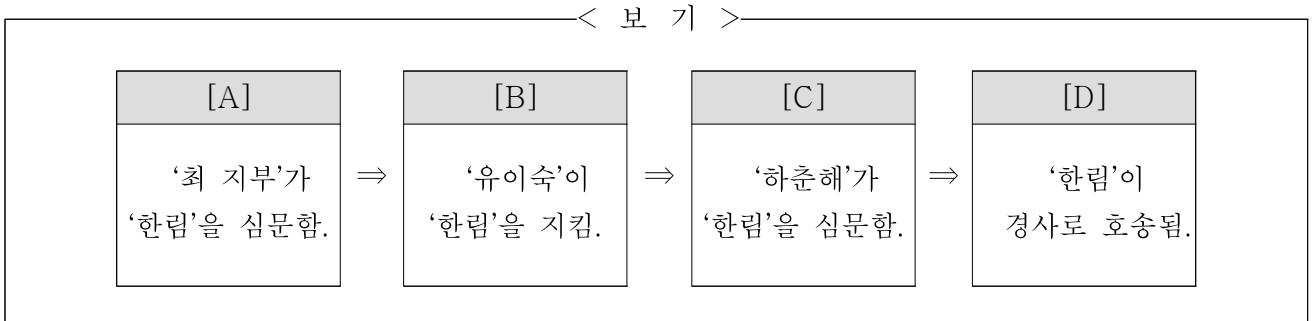
하 어사는 왕겸을 보내 옥중의 한림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리고 ㉢ 수레를 빨리 몰아 경사로 가면서 최 지부에게 알려두었다.

“이 사건은 성급히 판결해서는 안 되니 황제께 아뢴 후에 처리하려고 하오. 최 지부께서는 옥리들을 잘 단속하여 형벌로 죄인이 죽거나 자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오.”

그때 범한은 최 지부가 한림을 보호하려는 뜻이 있고 또 유이숙 때문에 감히 독약을 먹일 수도 없자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리하여 즉시 한 필 말을 타고 밤새도록 서울로 달려가서 엄승에게 뇌물을 쓰니, 엄승은 소흥부 죄인을 경사로 올리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유이숙과 왕겸은 한림을 보호하여 길을 나섰다. ㉣ 계화가 말 앞에서 통곡을 하며 배웅하자 한림이 말을 세우고 눈물을 흘렸다. 길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서상의 액(厄): 기린이 노나라 사람, 서상에 의해 잡힌 일.

23. <보기>는 윗글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부터 [D]까지의 흐름은 시간의 순차적 순서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② [A]에서 ‘범한’은 ‘한림’을 처벌받게 하려다가 실패하자, [A]와 [B] 사이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 ‘한림’을 죽이려 하고 있다.
- ③ [A]에서의 ‘최 지부’와 마찬가지로 [C]에서의 ‘하춘해’도 ‘한림’의 자백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④ [B]는 ‘계화’의 ‘한림’에 대한 정성이 계기가 된 것으로, [D]에서 ‘유이숙’이 ‘한림’을 따라 경사로 가는 길에 나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⑤ [C] 이후에 ‘하춘해’는 편지를 보내 ‘한림’을 설득하려다가 실패한 뒤, 차선책으로 [D]의 일을 주선하여 ‘한림’의 옥사를 해결하려 하였다.

2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한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범한’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 ② ㉡: ‘유이숙’이 결심을 하는 데에 ‘용모’에 대한 평가가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 ‘한림’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춘해’의 처분을 따르려는 심리를 엿볼 수 있다.
- ④ ㉣: ‘하춘해’가 ‘한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급해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⑤ ㉤: 주위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한림’과 ‘계화’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5. ㉠을 쓴 의도를 고려할 때, 그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신의 지금 행동은 나의 심금을 움직이고 있다.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덕행을 쌓아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
- ② 고발장의 내용과 달리 당신의 인품은 참으로 아름답다. 당신을 잃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사실대로 말해 달라.
- ③ 당신이 죄의 대가를 혼자 지려는 모습이 많은 이의 귀감이 되고 있다. 비록 강상의 죄를 범했지만 참 아쉽다.
- ④ 당신은 현재 옥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나의 고민을 덜어 주기 바란다.
- ⑤ 어머니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당신은 현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의 어머니가 더 괴로울 수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창선감의록」은 착한 사람은 예외 없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구조를 통하여 효와 우애라는 중세적 윤리 의식을 고취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핵심 갈등은 화춘과 화진(한림) 사이의 갈등 즉, 무능한 가장인 형(화춘)과 그로부터 가문을 지키려는 동생(화진)의 갈등이다. 그 외 선한 인물을 도와주려는 조력자들과, 악한 인물들과 결탁한 인물들의 대결 구도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시종일관 효와 우애를 중시하는 화진의 태도는 개인의 명예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가문을 번영케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 ① ‘계화’가 ‘한림’의 옥중 음식을 마련하고 ‘하 어사’가 ‘왕겸’에게 지시하는 데서, 이들이 ‘한림’을 도우려는 조력자임을 알 수 있어.
- ② ‘한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나서도 ‘허위로 자백하’겠다고 결심하는 데서, 중세적 윤리 의식이 얼마나 내면화되었는지 깨달았어.
- ③ ‘범한’과 ‘엄승’은 ‘한림’의 ‘어머니와 형’과 함께 악한 세력에 속하여 선한 인물을 도우려는 인물들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듯해.
- ④ ‘최 지부’가 ‘범한’을 꾸짖어 내쫓고 ‘유이숙’이 ‘범한’으로부터 ‘한림’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것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하려는 ‘한림’의 뜻을 수용했기 때문이군.
- ⑤ ‘한림’이 ‘최 지부’의 설복에도 꿈적하지 않고 ‘하춘해’의 설복에도 자신의 뜻을 굳건히 유지한 것은, 개인보다는 가문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겠군.

[27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편익의 크기를 ㉠ 예측하고 비교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핵심은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뒤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에서 비용은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데 비해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 분산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각각 계산해야 한다. 이때 편익이나 비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변화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계산하여 합산하면 비용편익분석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인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할인율을 r 이라고 할 때 1년 후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현재가치} = \frac{\text{1년 후 미래가치}}{1+r}$$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용의 합계와 편익의 합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의 합계와 편익의 합계를 계산하여 비교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를 들 수 있다.

순현재가치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편익의 합계에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의 합계를 뺀 값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적절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사업의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수록 사업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편익-비용비는 편익의 합계를 비용의 합계로 나눈 값, 즉 단위 비용 당 발생한 편익을 가리킨다.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클수록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양의 값을 갖는 순현재가치나 1보다 큰 편익-비용비가 사업 수행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예컨대 투자할 자금이 ㉠ 제한된 상태라면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비용이 투자할 자금의 범위 내에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는 모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사업 선택의 기준이다. 다만 전자가 비용을 뺀 편익의 규모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후자는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성에 무게를 둔다. 따라서 사업 선택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고민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에서 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자. 총 3개의 후보지 A, B, C를 대상으로 저수지 건설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현재가치는 $A > B > C$ 순으로 크게 나온 반면 편익-비용비는 $C > B > A$ 순으로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정책을 결정할 때 순현재가치에 의한 우선순위와 편익-비용비에 의한 우선순위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편익의 규모는 크지만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성이 낮거나, 반대로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성은 높지만 편익의 규모가 작은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용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한편 순현재가치나 편익-비용비는 모두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의 현재 가치는 낮게 평가된다. 공공사업이 초기에 비용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한다는 점을 ㉢ 감안하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에 대한 현재가치가 낮아지므로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많이 줄어든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할 때에는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는가가 중요하다.

공공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낮은 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자본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이자율보다 낮다. 공공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의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을 공공사업에 적용하여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의 가치를 크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공공사업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이익에 무게를 두는 것과 같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이자율처럼 높다면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는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밑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이유
- ②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할인율의 관계
- ③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는 공공사업의 유형
- ④ 비용편익분석에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이유
- ⑤ 비용편익분석에서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를 산출하는 방법

28.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정부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A, B, C, D 각각의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편익의 합계와 비용의 합계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가 배정한 총예산은 2,000이고 비용은 도로 건설비 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제시된 편익과 비용 외에는 어떤 요소도 고려하지 않는다.)

도로	편익의 합계	비용의 합계
A	500	250
B	700	400
C	1,000	800
D	1,500	1,000

- ① 만약 정부의 총예산이 2,450으로 증가한다면 A, B, C, D를 모두 건설할 수 있겠군.
- ② 가용 예산과 순현재가치를 고려했을 경우 B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군.
- ③ 비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D보다 B를 먼저 건설해야 하겠군.
- ④ 단위 비용 당 최대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A를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군.
- ⑤ 만약 C의 편익이 300만큼 줄어든다면 편익의 규모로 볼 때 C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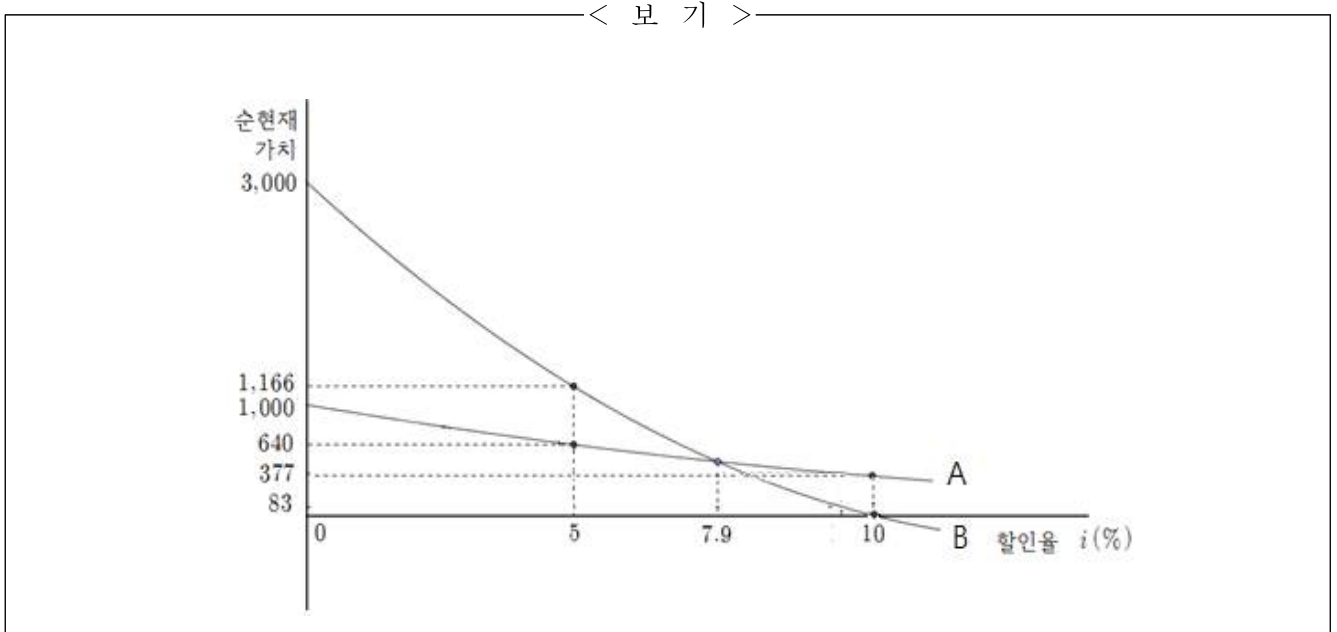
29.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선생님이 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낮을수록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할인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① 비용편익분석을 민간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되어요.
- ② 공공사업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 ③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되어요.
- ④ 공공사업의 편익보다는 비용을 늘어나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⑤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저평가될 수 있어요.

30. <보기>는 할인율 변화에 따른 A, B 두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단, A, B 두 사업의 비용은 동일하며, 제시되지 않은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A와 B의 순현재가치는 높아진다.
- ② 할인율이 0%일 때 편익-비용비는 A가 B보다 높다.
- ③ 할인율이 5%일 때 A사업이 B사업보다 사업가치가 높다.
- ④ 할인율이 7.9%일 때 B사업이 A사업보다 사업가치가 높다.
- ⑤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면 B의 편익-비용비는 1보다 작다.

3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미리 헤아려 짐작함.
- ② ㉡: 갈라져 흩어짐.
- ③ ㉢: 하지 못하도록 함.
- ④ ㉣: 생각하고 헤아려 봄.
- ⑤ ㉤: 참고하여 생각함.

[32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풀뚝을 수뚝을 땅을

바윗덩이를 무르녹이는 열기가 쏟아져도

오직 네만 냉정한 듯 차게 흐르는

강아

천치의 강아

국제철교를 넘나드는 무장열차(武裝列車)가

너의 흐름을 타고 하늘을 깰듯 고동이 높을 때

언덕에 자리 잡은 포대(砲臺)가 호령을 내려

너의 흐름에 선지피를 흘릴 때

너는 초조에

너는 공포에

너는 부질없는 전율밖에

가져본 다른 동작이 없고

너의 꿈은 꿈을 이어 흐른다

네가 흘러온

흘러온 산협에 무슨 자량이 있었더냐

흘러가는 바다에 무슨 영광이 있으랴

이 은혜롭지 못한 꿈의 향연을

전통을 이어 남기려는가

강아

천치의 강아

너를 건너

키 넘는 풀속을 들춰처럼 기어

색다른 국경을 넘고자 숨어 다니는 무리

맥 풀린 백성의 사투리의 향려(鄉閭)*를 아는가

더욱 돌아오는 실망을

묘표(墓標)를 걸머진 듯한 이 실망을 아느냐

㉠ 강안(江岸)에 무수한 해골이 뒹굴어도

해마다 계절마다 더해도

오직 너의 꿈만 아름다운 듯 고집하는

강아

천치의 강아

- 이용악, 「천치(天痴)의 강(江)아」 -

* 향려: 시골 마을.

(나)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기러기같이
 서리 묻은 선달의 기러기같이
 하늘의 얼음짱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평생을 울고 가려 했더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민들레나 쭉쭈풀 같은 것들
 또 한번 고개 숙여 보라 함인가

황토언덕
 꽃상여
 때과부의 무리들
 여기 서서 또 한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 서정주, 「풀리는 한강가에서」 -

(다)

오늘 한강 하구(河口)에 서서 당신의 강물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물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골짜기와 들판을 지나 바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숭한 역사를 쌓아가는 살아 있는 물입니다.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뛰어내리고 댐에 갇히면 뒷물을 기다려 다시 쏟아져 내리는 치열한 물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강물과는 달리 바다는 더 이상 어디로 나아가지 않는 물입니다. 바다로 나와 버린 물은 아마 모든 의지가 사라져 버린 물의 끝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엽서를 들고 먼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통일 전망대를 찾아왔습니다. 태백산에서 시작하여 굽이굽이 천 리 길을 이어온 한강과 마식령산맥에서부터 오백 리 길을 흘러온 임진강이 서슴없이 서로 몸을 섞으며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길을 따라 강화도의 월곶리에 있는 연미정(燕尾亭)으로 왔습니다. 마침 밀물 때를 만난 서해의 바닷물이 강화 해협을 거슬러 이 두 물을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강심에는 인적 없는 유도(流島)가 적막한 DMZ 속에서 잠들어 있고 기다림에

지친 정자가 녹음 속에 늪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안(江岸)을 따라 강화의 북쪽 끝인 철산리(鐵山里)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멀리 개성의 송악산이 바라보이고 예성강물이 다시 합수하는 곳입니다.

생각하면 이곳은 남쪽 땅을 흘러온 한강과 휴전선 철조망 사이를 흘러온 임진강, 그리고 분단 조국의 북녘 땅을 흘러온 예성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파란만장한 강물의 역사를 끝마치고 바야흐로 바다가 되는 곳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일깨우는 곳입니다. 멀리 유서 깊은 벽란도(碧瀾渡)의 푸른 솔이 세 강물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 철산리에서 바다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띄웁니다.

당신이 내게 강물을 생각하라고 하듯이 나는 당신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담아 엽서를 띄웁니다. 바다로 나온 물은 이제 한강도, 임진강도, 예성강도 아닌 바다일 뿐입니다. 드넓은 하늘과 그 하늘의 푸름을 안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강물을 사랑하는 까닭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강물은 고난의 시절입니다. 강물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물이 되 얽어지고 갇히고 찢어지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한강과 임진강·예성강 유역은 삼국이 서로 창검을 겨누고 수없이 싸웠던 전장(戰場)입니다. 지금도 ㉠ 임진강은 휴전선 철조망에 옆구리를 활퀴인 몸으로 이곳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러나 이곳 철산리 앞바다에 이르러서는 암울한 강물의 시절도 그 고난의 장을 마감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이제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달리는 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바다가 됩니다. 달려야 할 목표가 없다가보다 달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부질없었던 강물의 시절을 뒤우치는 각성의 자리이면서 이제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 시야를 열어나가는 조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강물의 치열함도 사실은 강물의 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험준한 계곡과 가파른 땅으로 인해 그렇게 달려왔을 뿐입니다. 강물의 본성은 오히려 보다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겸손과 평화인지도 모릅니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그 본성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며 가장 평화로운 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물이고 평화로운 물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늘로 오르는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목표를 회복하고 청천 하늘의 흰 구름으로 승화하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방법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최후의 목표로서의 평화입니다.

- 신영복, 「철산리의 강과 바다」 -

32.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 (다)는 모두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활용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⑤ (가) ~ (다)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를 구체화하여 특정 공간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꿈과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지가 생성되는 공간이다.
- ③ ㉠과 ㉡은 모두 민족이 처한 비극적 현실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④ ㉠과 달리 ㉡은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적 태도를 다짐하는 공간이다.
- ⑤ ㉡과 달리 ㉠은 과거의 삶에 대한 애착을 환기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1930년대 최소한의 생존 조건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한반도의 백성들은 만주와 시베리아로 이주해 갔는데, 이를 가장 잘 목격할 수 있었던 지역이 두만강변이었다. 이용악은 이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노출된 유이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였다. 그 자신 또한 가난과 상실로 얼룩진 가족사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을 개인적 비애의 울타리에 가두어 두지 않고 비판적 안목을 통해 민족적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 ① 2연의 ‘무장열차’, ‘포대’가 가져오는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의 해소를 위해 3연에서 ‘너’는 ‘전통’을 이어 남기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2연의 ‘선지피를 흘릴 때’라는 처참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마주했던 절망적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 ③ 3연의 ‘자랑’, ‘영광’은 4연의 ‘국경을 넘고자 숨어 다니는 무리’에서 연상되는 유이민의 비참함과 대비되고 있다.
- ④ 4연의 ‘키 넘는 풀속’을 기어가는 ‘들쥐’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한반도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다.
- ⑤ 4연의 ‘묘표(墓標)를 걸머진 듯한 이 실망’에도 불구하고 5연에서 ‘너의 꿈만 아름다운 듯 고집’하는 존재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35. (나)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자연 현상을 인간의 감정과 연결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2연에서는 화자가 살아가려 했던 삶의 모습을 ‘기러기’에 빗대어 표현하였군.
- ③ 3연과 4연에서는 인간의 삶과 자연 현상을 대비함으로써 자연의 비정함을 부각하고 있군.
- ④ 5연에서는 ‘꽃상여’, ‘떼과부’와 같은 시어를 통해 서글픈 이미지가 형상화되고 있군.
- ⑤ 6연에서는 1연과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되어 화자의 내면이 강조되어 전달되는군.

36.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 이 수필의 글쓴이는 감격적 체험을 하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차곡차곡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공간적 특성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서술할 뿐 아니라 독자와의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독특한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소망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상징물을 설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표현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감격이 독자의 감격으로 전이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감상해 봅시다.

학생 1 : 글쓴이가 ‘통일 전망대 → 연미정 → 철산리 언덕’ 순으로 장소를 옮기며 ‘강’의 흐름에 주목하고 지리적 특성에 맞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것에서 묘한 설득력을 느꼈어요.....㉠

학생 2 : ‘철산리’에서 ‘한강’과 ‘임진강’과 ‘예성강’을 ‘유서 깊은 벽란도의 푸른 솔’이 ‘배웅’한다는 의인화된 표현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끝마치는 데에 따른 감회를 부각하고 있는 듯해요.....㉡

학생 3 : 글쓴이가 ‘당신’에게 엽서를, 그것도 ‘마지막’ 엽서를 띄우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게다가 ‘당신’에는 독자인 ‘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니 글의 내용이 더욱 진솔하게 다가왔어요.....㉢

학생 4 : ‘강’을 ‘치열한 물’에 빗대어 강한 의지를 지닌 대상으로 그리기도 하고, ‘고난의 세월’을 살아간 대상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여 ‘강’의 상징적 의미가 더욱 다각적으로 느껴졌어요.....㉣

학생 5 : ‘강물’과 ‘바다’에 대한 ‘당신’과 ‘나’의 대조적 인식이 ‘낮은 곳을 지향하는’ ‘강물’과 ‘흰 구름으로 승화하는’ ‘바다’와의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이 잘 느껴졌어요.....㉤

① ㉠

② ㉡

③ ㉢

④ ㉣

⑤ ㉤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학을 지배 이념으로 수용한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성리학의 영향력은 막대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다양해지자 성리학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성리학의 핵심 사유 체계였던 ㉠ 주희의 ‘이기론(理氣論)’도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사상을 접한 조선 후기의 학자들은 기존의 사유 체계의 변화를 ㉡ 도모했다.

주희의 이기론은 존재의 근원과 그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사유 체계였다. 존재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는 ‘이(理)’이고, 각 개체가 고유성을 띠고 존재하게 하는 것은 ‘기(氣)’이다. ‘이’는 만물이 공유하는 존재론적 근거로서 모든 개체에 동일하지만, 개체가 갖고 있는 ‘기’는 서로 다르다. 만물은 선형적인 ‘이’와 ‘기’가 결합한 형태로만 존재한다. 또한 ‘성리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곧 ‘성[본성]’이다.

위와 같은 주희의 이기론을 강하게 비판한 사람 중 하나는 정약용이었다. 그는 ‘부여된 ‘이’는 동일하지만 ‘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물은 차이가 난다.’는 주희의 생각은 ‘개체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개체이므로 만물은 다른 종류의 개체로 윤회한다.’는 불교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였다. 즉, 주희가 불교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유학 안에 갖추려고 고민하였는데, 그런 고민을 거쳐 마련한 성리학적 틀이 불교와 매우 유사하다는 비판이었다. 실제로 주희의 ‘이기론’에는 불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정약용은 ‘유형한 물질’과 ‘무형한 정신’의 이원 구도로 세계를 인식했는데, ‘유형한 물질’은 무목적적으로 움직이는 ‘기’의 지배를 받고, ‘무형한 정신’은 ‘기’의 무목적적인 움직임에 질서를 부여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형한 물질’인 육신과 ‘무형한 정신’인 ‘이성 능력’이 오묘하게 합하여 인간이 형성되는데, ‘이성 능력’에는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이러한 ‘이성 능력’은, 사물이나 짐승에게서는 찾을 수 없기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성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정약용은 주희의 ‘이’가 ‘이성 능력’도 ‘자유 의지’도 없는 선형적 생성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포괄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기’뿐이고, ‘이’는 실체에 딸린 속성에 ㉢ 불과하므로 ‘이’는 ‘기’가 드러나야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결국 주희의 ‘이기론’에서 ‘기’는 정약용에게도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이’는 개념적으로 축소되어 ‘이’ 중심의 이기론은 이론적 틀로서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약용의 생각은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에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신학(神學)을 전파하기 위해 저술한 『천주실의』를 읽었는데, 여기에는 ‘유형한 물질’, ‘무형한 정신’, ‘자유 의지’ 등에 해당하는 개념뿐 아니라 주희의 ‘이’가 정신적 실체가 될 수 없다는 마테오 리치의 생각도 함께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흥미로운 것은 마테오 리치가 의존한, 현상에 대한 인식적 틀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 차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약용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왔다면, 최한기는 당시 조선에 ㉤ 유입된 서양의 근대적 자연관에 의지하여 ‘이기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는 ‘기’ 밖이 아니라 ‘기’ 가운데서 구해야 미루어 알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라는 법칙 세계에서 현상 세계로 접근하지 말고 ‘기’라는 현상 세계에서 ‘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경험주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최한기에게 ‘기’는 일종의 에너지로서, 자발적으로 운동하며, 갖가지 도구를 통해서 수치화되어 측정 가능한 대상이었다. 이러한 최한기의 생각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작용에 의해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한다고 본, 중국 철학자 장재(張載)의 주장과도 유사하지만, 당시 동아시아에 유행했던 뉴턴의 ‘에테르’ 가설과도 연관된다. 19세기 말에 그 존재가 부정되었지만, 에테르는 빛을 전달하는 매질로 우주에 가득 존재하는데, 이것이 응결되어 구체적인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뉴턴은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희는 현상적 측면의 근원으로 ‘이’를 제시하여 ‘이’의 선형성을 강조했는데, 최한기는 ‘이’의 선형성을 부정하고 ‘이’를 ‘기’의 내재적 법칙성으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의 운동 법칙, 인식의 원리 및 판단의 기준으로서 여전히 최한기의 사상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으로 남아 있었다.

정약용과 최한기와 같이 ‘이기론’의 한계성을 절감한 ㉠ 조선 후기 학자들은 서양의 사상을 접하고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주희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주희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주희의 핵심 범주인 ‘이·기(理氣)’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희의 개념적 틀은 상당수의 학자들의 이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희의 ‘이기론’에서 ㉡ 탈피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절반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37.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주희의 이기론은 불교의 논리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 ② 주희는 개체의 고유성에 관계없이 ‘이’의 동일성을 주장하였다.
- ③ 마테오 리치가 기댄 철학적 토대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비롯된다.
- ④ ‘에테르’ 가설과 달리 최한기의 ‘기’ 이론은 과학적 검증을 받지 못했다.
- ⑤ 『천주실의』는 저술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약용에게 영향을 미쳤다.

38. ‘정약용’과 ‘최한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약용은 ‘이’는 ‘기’에 종속된 속성이라고 보았다.
- ② 최한기는 ‘기’로부터 ‘이’를 인식해 가는 접근법을 강조했다.
- ③ 정약용과 최한기는 모두 ‘이’보다는 ‘기’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 ④ 정약용과 최한기는 모두 주희와 달리 ‘이’와 ‘기’의 관련성을 부정했다.
- ⑤ 최한기는 주희와 달리 ‘기’의 근원적 원리로서의 ‘이’의 선형성을 부정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사르트르에 이르러서 서양 철학은 ‘본질’과 ‘현상(사물)’이라는 이원론적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플라톤 이후 ‘본질’과 ‘현상’에 매달린 철학자들과 달리 사르트르는 톱이 썰기 위해 존재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사물[톱]은 본질[물건을 썬는 작용]에 의존하지만, 인간은 주어진 어떤 본질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간은 고유의 본질도 없이 그저 던져진 존재라는 데서 오는 불안을 극복하고 스스로에게 본질을 부여해야만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르트르의 생각 덕분에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나아가 미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① 주희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을 최한기가 부정한 것이 당신들의 한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 ② 그 자체로 완전한 이론 체계인 주희의 ‘이기론’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는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③ 현상 및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기존의 사고의 틀인 ‘이기론’을 활용하는 한 충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 ④ 주희가 관심을 기울인 개체의 고유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기에 당신들은 허상을 쫓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 ⑤ ‘이기론’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기에 ‘이기론’에 대한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었습니다.

40. 밑글의 ㉠와 <보기 1>의 ㉡의 <보기 2>에 대한 이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1 > —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질료는 형상이 실현될 바탕이고, 형상은 질료가 실현된 상태이다. 형상은 완전무결하고 완성적인 것이고, 질료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질료는 미완성적이고 불완전하므로 완성적인 것을 향해 변화하고자 한다. 형상과 질료의 합성체가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실체가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실체를 참된 존재로 여겨 ‘제1실체’라 불렀다.

— < 보기 2 > —

우리 앞에 모래사장이 있다고 해보자. 그곳에 있는 모래를 둥근 그릇에 담아 꼭꼭 눌러서 바닥에 놓고 그릇을 빼면, 우리는 둥근 모양으로 서 있는 모래 덩어리를 보게 된다.

- ① ㉠은 둥근 모양의 모래 덩어리로 있게 한 ‘그릇’을 ‘기’로 보았을 것이다.
- ② ㉠은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양이 되는 모래의 성질을 ‘이’에 대응시켰을 것이다.
- ③ ㉡는 모래가 취한 둥근 형상은 질료인 모래가 실현된 상태라고 여겼을 것이다.
- ④ ㉡는 모래 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모습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둥굴’을 모래의 형상으로 여겼을 것이다.
- ⑤ ㉡는 둥근 그릇에 담기기 전의 모래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라는 점에서 질료의 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41. ㉠ ~ ㉤를 바꿔 쓸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꺾었다
- ② ㉡: 지나지 않으므로
- ③ ㉢: 빌린
- ④ ㉣: 들어온
- ⑤ ㉤: 무너뜨리려던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A] 죽은 국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 눈살을 찌푸리고 코로 방귀 똥다.

┌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싸리, 피, 바랭이는 나기도 많이 났네.

환곡 비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냈고.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① 장초(莠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B] 시절이 풍년인들 지어미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고.

베들의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걸려 있고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 녹이 다 슬었다.

세시 절기, 잔치, 제사는 무엇으로 지내며

원근의 친척, 오가는 손은 어떻게 접대할고.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야 여의려뇨.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餞送)하여

길일을 잡아서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우락을 너와 함께 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C]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꾸짖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世上)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너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 억지로 회피하여 잔피로 떨쳐내라.

[D] ┌ 하늘이 만든 이 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 빈천(貧賤)도 내 분수어니 설위한들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 장초: 시경(詩經)에 나오는 복숭아 나무의 일종.

(나)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씀홀가 <제3곡>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믿음 두는고 <제5곡>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름과 혼가지라
 흐믈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제6곡>

㉞ 청산(靑山)은 엇데흐야 만고(萬古)애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데흐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타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제11곡>

우부(愚夫)도 알며 흐거니 괴 아니 쉬운가
 성인(聖人)도 못다 흐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낫 됴에 늙는 주를 몰래라 <제12곡>

* 순풍: 순박한 풍속.

* 교교백구: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망아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 어약연비 운영천광: 고기가 뛰고 소리개가 날고 구름 그림자와 하늘 빛을 가리키는 말. 대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나타냄.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42.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신적인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체념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명령의 형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43. (가)의 [A] ~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와 대상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C]에 이르러 소멸하고 있다.
- ② [B]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한 가난한 상황이 [C]에서 해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 ③ [C]에서는 [B]와 달리 대화 장면을 제시하여 시상 전개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④ [C]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⑤ [B]에서 가난으로 괴로워하던 화자는 [D]에서는 숙명론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고 있다.

4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이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에게 심경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는 화자에게 삶의 목표를 일깨워 준다.
- ④ ㉠은 화자에게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고, ㉡는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내면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황은 「도산십이곡」을 통해 성리학적 수양 과정을 형상화하였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본래 타고난 순수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의 비루한 기질을 갖고 있어 순수한 본성을 완전히 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황은 자연을 보면서 거기에 깃든 이치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인식하고, 옛 성인의 행적을 본받아 순수한 본성을 최대한 발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지은 것이다.

- ① <제3곡>에서 사람은 본래 ‘인성이 어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12곡>에서 ‘우부도 알며 흐거니’라고 노래한 것이군.
- ② <제5곡>에서 ‘교교백구’가 ‘멀리 믿음’ 든다고 화자가 타박한 것은, 그것을 비루한 기질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군.
- ③ <제6곡>의 ‘사시가홍’이 ‘사름과 혼가지’라고 화자가 감탄한 것은, <제3곡>에서 말한 ‘거죽말이’와 ‘올흔 말이’의 차이를 넘어선 경지를 화자가 깨달았기 때문이군.
- ④ <제6곡>의 ‘어약연비 운영천광’은 자연의 이치로 <제12곡>의 ‘우부’나 ‘성인’이 공통적으로 지닌 순수한 본성에 대응되겠군.
- ⑤ <제11곡>에서 ‘만고상청호리라’는 성리학적 수양과 실천을 통해 성인에 이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